원자력산업살리기협의회 회원기업 대표 성명서

원자력산업살리기협의회 회원기업 대표들은 7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원전 정책과 원자력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원자력산업은 기술집약적 중소기업형 산업으로 기자재분야는 소재와 부품공급사의 90%가 중소기업"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와 신고리 5 · 6호기 건설 중단 방침으로 약 700여개 원자력 공급업체와 95개의 원도급사 그리고 512개 하도급사와 협력사 등이 불안과 일자리 박탈 우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읍소했다. 원자력산업살리기협의회는 무진기연 등 원자력 관련 중소기업 200여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여 700여 기업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최근 대통령이 선포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하여, 에너지산업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에서 중소기업만이 해낼 수 있었던 성과와 노력, 그리고 앞으로의 건실한 비전에 심각한 타격이 오고 있음을 알고,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안고 있는 고통을 헤아리어 탈원전 정책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안전하게 원전을 운영하면서 값싸고 친환경적인 전력 에너지를 공급해왔으며, 원전은 국가 산업 발전과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서민의 에너지 복지에 기여해왔다. 또한 UAE 원전 건설과 운영 계약으로 약 77조원의 수출 효과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성장 잠재력을 잃어가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었다.

원자력산업은 국내 인력과 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특징인 '기술 집약적 중소기업형 산업'이다. 실제 기자재 제작 분야는 소재 및 부품 공급사의 90%가 중소기업이 맡고 있으며, 건설(시공) 분야 역시 거의 모든 협력업체가 중소기업이다.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그 동안 사명감을 갖고 꾸준한 설비 투자와 기술 인력 양성, 그리고 제작 및 건설 공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한 결과, 우리나라가 세계 7대 원전수출국으로서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고 자부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5월 말 현재 28%(설계 79%, 구매 53%, 시공 9%)의 종합공정률을 보이는 가운데, 이미 700여개 기업과 중소기업 인원만 최소 2만9,000여 명이 투입되었으며, 신한울 1、2호기 건설 이후 추가 수주가 없어 경영난에 직면했던 원자력산업계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방침으로 말미암아 국내 원자력산업 설계, 주기기 및 보조기기, 시공사 등 약 700여개 원자력 공급업체(신고리 5、6호기 건설 참여 기준 ▲ 원도급사=95개사 ▲ 하도급사 및 협력사=512개)는 기업의 불안한 미래와 회사 종사자들의 일자리 박탈 우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0여년 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외국의 원전기술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원전산업에 대해 각 분야별로 R&D 등을 통해 끊임없는 연구와 피나는 기술개발 노력으로 최고 등급인 Q등급의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여 100% 국산화 기술을 원전산업에 적용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해외 원전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각 분야별로 가장 완벽한 기자재 공급망(Supply Chain)을 갖추고 원전기술 수출 등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미국은 정부의 원전 건설 전면 중단 정책에 따라 오랜 기간 원전 건설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원전 기자재 공급업체가 원자력사업을 포기했으며, 그로 인해 전문 엔지니어의 인력 이탈 및 조달산업의 붕괴로 기자재 공급망이 와해되어 원자력산업의 재건에 상당한 차질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게 원전 건설 1등자리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만약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고 추가 원전 건설이 계획되지 않는다면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한 인력과 기자재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이제까지 쌓아온 원전 경험과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은 사장되고, 원전 수출의 기회도 사라지게 될 것이며, 우리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문을 닫게 됨으로써 그동안 열악한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원자력기술 자립을 위해 애써 흘린 땀 또한 허공으로 날아가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즉시 재개하여 국가 경제의 중심축인 원자력 산업을 위해 평생을 연구 노력해 온 우리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 제패 직전에 꿈을 접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한 그 가족들이 생계수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

첫째, 국내 원자력산업 및 중소기업 공급망의 붕괴 가능성이 높은 탈(脫)원전 기조를 국가 경쟁력 및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재고해 주기 바란다.

둘째,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화를 위해 계획된 제3세대 원전 건설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UAE 바라카 원전 및 사우디아라비아 SMART 원전 건설과 영국, 체코를 비롯한 동유럽 및 개발도상국에 수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주기 바란다.

셋째,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1등 제품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세계 원전산업을 제패하여 글로벌 최고급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2017년 7월 20일

원자력산업살리기협의회 회원기업 대표 일동

〈서명인〉

무진기연(주) 조성은, 남북전기 강영식, (주)포멀웍스 김태효, 유로테크주식회사 박청영, (주)삼미정공 김호현, (주)삼신 박성갑 외 2명, (주)태